

**2021학년도 새내기
KAU 자랑
공모전**

**한국항공대학교
새내기성공센터**

목차

With KAU 함께 이루는 꿈

아싸가 인싸가 되기까지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박○준 2

우리 학교에서만 경험해 볼 수 있는 활동이 정말 많아요

항공교통물류학부 박○혁 4

항공우주 특성화 대학 “한국항공대학교”의 상징 A300-600

항공교통물류학부 최○나 7

내가 그리는 캠퍼스 맵

경영학부 김○경 12

신입생과 함께하는 KAU 캠퍼스 맵

항공운항학과 송○진 18



아싸가 인싸가 되기까지

항공대의 커리큘럼, 일정, 학우들, 교수님들 모두가 제겐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자랑거리이자 제 자부심입니다.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박○준



저는 이번 공모전에서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저는 그렇게 사교적인 성격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도 친구 한두 명만 사귀었을 정도로 낯을 좀 가리는 성격입니다.

그런 제가 항공대에 합격했고, 즐거운 캠퍼스 생활 보다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하고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고민이 많았고,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강의와 여러 행사들의 취소 소식은 이런 고민들을 더 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웃긴 고민이었습니다.

학교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지 못해 학교 갈 일이 없어 학교에 대한 정보가 적은 새내기들을 위해 멘토를 배정해주고, 학교가 익숙하지 않을 새내기들을 위한 학교 탐방 행사, 담임선생님이라는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선생님이 사라진 상황에서 방황할 새내기들을 위한 교수님 간담회 등은 제가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 보잉 행사, 록히드마틴 행사 등을 포함해 1년 내내 끊임 없이 도전할 기회를 마련해 주었고 이를 통해 팀원들과 소통하다 보니 어느새 제 주변에는 스스럼없이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동기들로 메워졌습니다.

같은 해 입학한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중학교 친구들의 경우 저와 마찬가지로

학교 갈 일이 없음에도 항공대 같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동기들 얼굴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항공대에 합격해서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을 통해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한 저는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학점 문제죠. 최근 취업 준비생의 취업난이 뉴스를 포함한 여러 매체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도 대학 공부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답은 저절로 해결됐습니다. 학부생, 졸업생, 교수님이 모두 인정한 항공대 커리큘럼이 답이었습니다. 고등학교보다 훨씬 더 학생의 사고를 요구하는 대학 과목들을 학생들이 직접 생각하고 답을 도출할 수 있게끔 훈련시켜주시는 교수님들의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 이런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었습니다.

특히 얼마 전 교수 간담회 시간에 지도교수님이 해주셨던 말은 제 마음속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학점을 위한 공부가 아닌, 진정한 공대생으로 거듭나기 위한 공부를 하다 보면 취업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라는 말이었죠. 단지 학점을 채우기 위해서만 공부를 하다 보면 4.2를 넘는 고학점에도 불구하고 3점대이지만 전공과목으로 채워진 학생보다 취업 경쟁률

이 낫다는 의미였습니다. 공부와 진로에 대해 고민인 저에게 이런 조언은 정말 주옥과도 같았습니다. 이는 제게 항공대를 사랑할 이유를 다시금 만들어 주었죠.

저는 항공대에 다닌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항공대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항공대의 커리큘럼, 일정, 학우들, 교수님들 모두가 제겐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자랑거리이자 제 자부심입니다. 이런 항공대에 다닐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Korea

Aerospace

University

열기구 체험 - 1783년을 경험하다.
KAU 역량관리시스템 - 1석 2조

우리 학교에서만 경험해 볼 수 있는 활동이 정말 많다고 생각한다. NASA와
의 석박사 연계활동, Boeing, Airbus, Lockheed Martin과의 산학 연계..

항공교통물류학부
박○혁



2021년 1년간의 재수생활을 마치고, 나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에 입학하게 되었다. 코로나가 관철을 줄만 알았지만, 큰 오산이었다. 역시나 비대면. MT, OT가 모두 취소된 상태로 나의 대학 생활은 시작되었다. 사실 입학할 때부터 학교에 큰 기대는 없었다. 주변 상권이 다른 대학에 비해 열악한 것도 사실이고, 학생 수가 타 대학에 비해 너무 적다 보니, 개설된 교양과목도 분명히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런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에서만 경험해 볼 수 있는 활동이 정말 많다고 생각한다. NASA와의 석박사 연계활동, Boeing, Airbus, Lockheed Martin과의 산학 연계 공모전 같은 경우는 항공분야에 특화된 학교가 아닌 이상, 쉽게 경험해 볼 수 없는 일이다. 필자는 아직 이러한 일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 외에도, 항공대에서만 경험해 볼 수 있는 활동은 무궁무진하다.

열기구 체험-1783년을 경험하다.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기 6년 전, 파리 시내에서 둥근 기체가 하늘로 떠올랐다. 이것이 바로 기록상 비행체의 시초이다. 항공대에는 이 열기구를 그대로 체험할 수 있다. 아마 항공대 학생들이라면 열기구 체험이라는 과목을 들어봤을 것이다. 개설된 수업 중에서 가장 특이하고 내용도 그

렇게 어렵지 않아서, 막학기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수업이다. 실제로 4학년 학생이 가장 많았다. 총 8주차로 이루어져 있으며, 6주차까지는 이론을 수강하고, 마지막 2주차에 낙하 구조물을 제작하고, 체험비행을 한다.



필자가 이 수업을 수강해본 결과, 이 수업이 특별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열기구를 타볼 수 있다. 인류는 열기구로 최초로 하늘을 날아올랐다. 즉, 이 수업을 통해, 인류 최초로 하늘을 날아올랐던 느낌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다. 아직도 열기구를 타고 25m 상공에서 바라본 학교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둘째, 열기구

라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다. 한국에서 열기구승강은 굉장히 생소하다. 실제 열기구를 탑승할 수 있는 환경이 제한되어 있고, 관련 산업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열기구 수업은 항공대에만 개설된 수업이라, 항공대를 제외한 타 대학에서 열기구를 체험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이다.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탑승장치가 아직도 나무로 제작된다는 점이었다. 나무가 금속에 비해 가벼운 점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충격 흡수가 가능하고 물에 쉽게 뜨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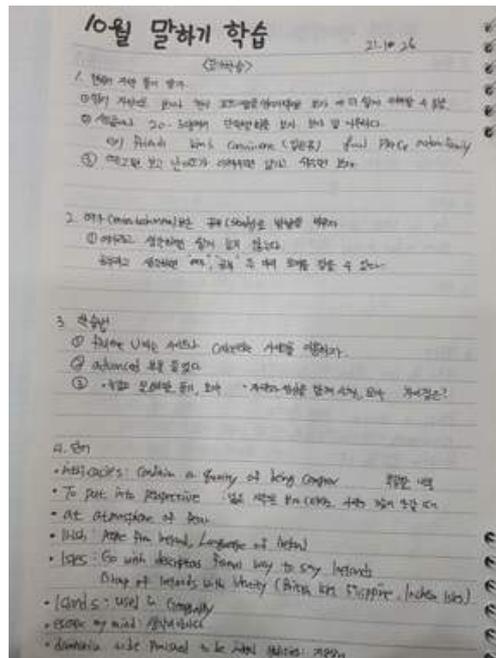
[열기구 위에서 찍은사진]

KAU 역량관리시스템 - 1석 2조

대학교에 납부한 등록금이 아까운가? 그럼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성적 장학금을 받는다. 둘째, 도서관입금의를 하는 등 도서관을 적극 이용한다. 셋째 교수님을 적극 활용한다. 만약 당신이 한국항공대학교에 재학중이라면 한가지 방법이 더 있다. 바로 역량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역량관리시스템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마일리지 장학금 때문이다. 프로그램을 수강할 때마다 마일리지 점수를 받는데, 일정 기준 이상 모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45점 이상 300000원)

또, 각 학교 부처마다 진행되는 프로그램 대부분이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취업연계, 학습법 특강, 성격검사, 코딩, 외국어 수업등 수강가능한 프로그램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필자가 가장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은 교수학습센터에서 진행되는 영어강좌이다. 한달에 한번씩, 원어민 교수님께 발음, 회화를 교정받을 수 있다. 매달마다 신청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일대일로 진행된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다. 달마다 수강을 하면서 느낀 점은, 교수님이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신다는 점이다. 무료로 교수님과 일대일로 학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수님께서 교정, 영어 공부방향 등 사소한 것들까지 열정적인 태도로 하나하나 가르쳐주셔서 영어에 보다 더 친숙해졌다.



사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채로 1학년을 마쳐서 체험해 보지 못한 것이 훨씬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앞서 언급했던 항공사 공모전에 참여해서 해외탐방의 기회를 얻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코로나 시국에도 본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상당히 많고, 역량관리시스템처럼 자기계발의 기회도 되고, 장학금도 지급받는 일석이조의 기회도 많다. 내년에는 학교가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싶다.



Korea

Aerospace

University

항공우주특성화 대학 “한국항공대학교”의 상징 A300-600

1년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항공대의 어떠한 것이 좋았는지 직접 느끼고 경험하면서 장점을 담아봅니다.

항공교통물류학부
최○나

Korea

Aerospace

University





경중
한국항공대
Korea Aerospace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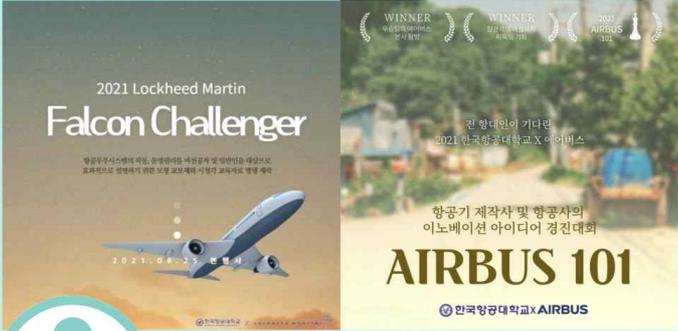
항공우주특성화 대학 '한국항공대'의 상징

조종실습, 전시 및 홍보, 멀티미디어 강의실, 체험관, 휴게실 등의 역할을 하며 한국항공대 학생들을 위한 실습공간 그리고 일반인들을 위한 전시와 체험 공간을 위해 조립중인 에어버스의 A300-600 기종!



새내기 성공센터

대학생활
슬기로운

경중
한국항공대
Korea Aerospace University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와 함께하는 공모전

세계 굴지의 항공우주기업 임직원들과 항공대 학생들이 만나 특강, 토크콘서트, 공모전 등 다채로운 행사를 함께 하는 한국항공대만의 자랑스러운 항공우주특성화 프로그램! 에어버스, 나사, 보잉, 록히드 마틴 해외탐방의 기회까지!

한국항공대
Korea Aerospace University

한국항공대의 다양한 비교과 활동

항공대의 새내기 성공센터, 대학일자리센터, 교수학습센터, 학생지원팀, 국제교류원 등과 함께하는 다양한 비교과 활동! 선배와의 멘토링부터 다양한 진로검사, 취업설명회, 기업특강, 학습클리닉, 실무멘토링 등을 통해 정보도 쌓고 마일리지도 쌓고! 마일리지 장학까지!



새내기 성공센터

대학 생활
슬기로운



한국항공대
Korea Aerospace University

항공분야에 특화된 커리큘럼과 수업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인 항공교통관제교육원부터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열기구 타볼 수 있는 항공대 인기강의 열기구체험까지! 이뿐만 아니라 항공우주학개론 및 항공우주산업개론, 항공법규, 항공 기상학 등 탄탄한 항공우주수업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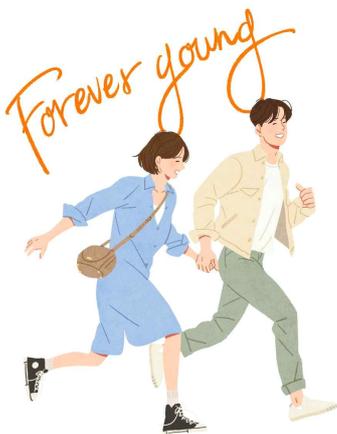
강종
한국항공대
Korea Aerospace University

항종을 불러일으키는 항공대 굿즈와 과잠

항공대의 송골매로고를 포인트로한
무선이어폰 케이스부터 활주로가 그려진 키링, 에코백!
그리고 각 과별로 멋진 과잠과 돤바까지!



장점 체크리스트



- 상징 #A300-600 #비행기 #송골매존
- 공모전 #보잉 #록히드 마틴 #에어버스 #해외탐방
- 활동 #비교과 #선배와의 멘토링 #학습법
- 수업 #관제교육원 #열기구 체험
- 굿즈 #송골매로고 #돤바 #과잠



[사진 및 내용 출처]

Airbus A300-600 - 에브리타임 <https://everytime.kr/389117/v/218752651>

공모전 포스터 및 항공대 굿즈 - 항공대 비트윈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p/CLJbvHwBPBLG/?utm_medium=copy_link

https://www.instagram.com/p/CVkg0qaPNDj/?utm_medium=copy_link

https://www.instagram.com/p/CPNKG9pwpr1d/?utm_medium=copy_link

https://www.instagram.com/p/CSz0jxap4Tp/?utm_medium=copy_link

관제교육원 및 열기구 - 항공대학교 홈페이지

http://old.kau.ac.kr/page/kaospace/kaunews_list4.jsp?act=VIEW&boardId=7487&communityKey=B0153&page=1

과잠 - 항공대학교 유튜브 <https://youtu.be/CM3svRFfgzo>

내가 그리는 캠퍼스 맵

학생들이 쉽게 접하고 지나가는 곳을 화자가 학교 생활을 하며 생각하거나 느낀대로 적어가며 직접 지도를 통해 대학을 설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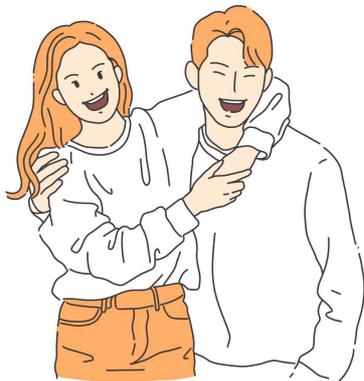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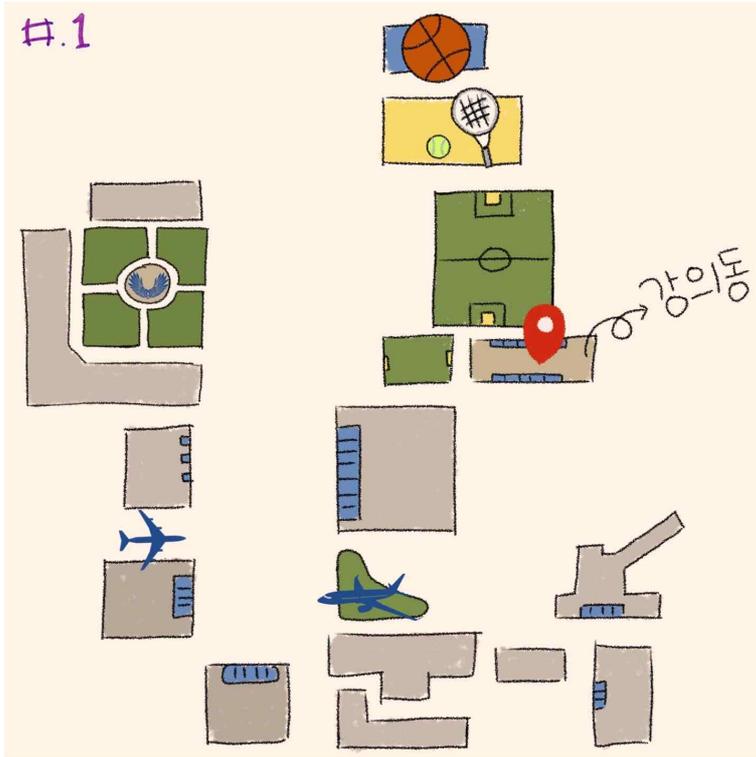
경영학부
김○경



Korea

Aero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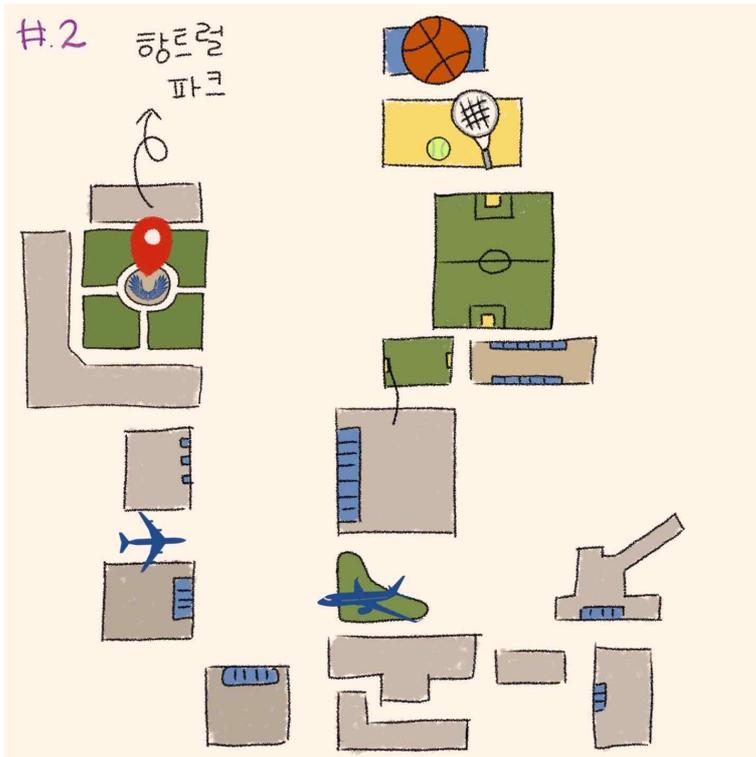
University



강의동

입학 후 첫 대면 수업을 했던 곳이라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장소 강의동의
으뜸은 2층 테라스랑 외부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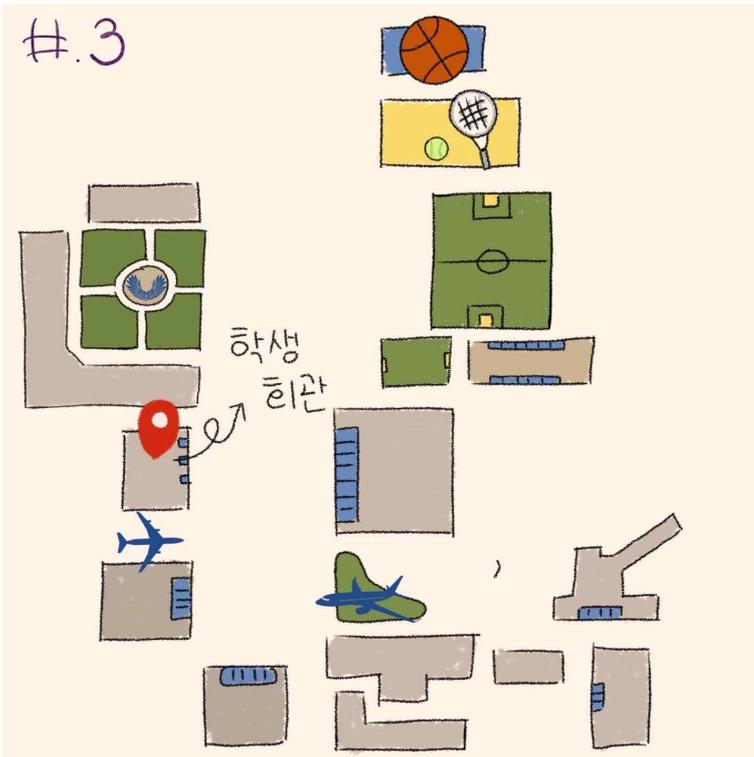




📍 항트럴파크

왜 이름이 항트럴파크인지는 모르지만 항공대의 대표 만남의 장소인 송골매 시계탑이 자리하고 있다. 학기 초반에 지리를 잘 모를땐 항상 여기서 동기들과 만났었다 😊





Korea

Aero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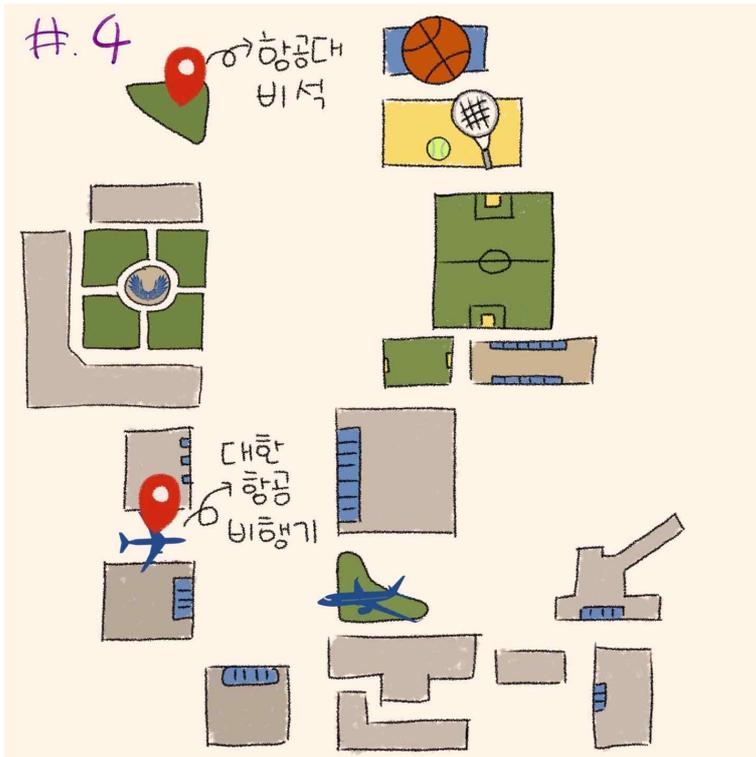
University



📍 학생회관

1층에는 학생 식당과 편의점, 카페가 있으며 2층에는 총학생회실, 과방, 학생복지위원실, 총여학생회 등이 있으며, 정중 방문하려 학식을 먹었다. 코로나여서 과방을 사용해본적은 없지만 가보고 싶다 😊





항공대 비석 & 대한항공 비행기

지하철역에서 나와 학교로 가다보면 볼 수 있는 비석 볼 때마다 항공대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첫번째, 강의동 앞에도 미니 비석이 있어요~ 올해부터 조립하기 시작한 대한항공 비행기도 볼 때마다 행복이 차오른다 😭



마우리

날씨 좋은 날 가게 되면 엄청 풍경 좋고 예쁜 항공대를 거닐 수 있어서 좋다 진짜 막찍어도 푸르르게 예쁜 사진을 건질 수 있고, 코로나라 학교에 많이 나오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쉬웠다ㅠㅠ 우리 학교 마스코트 품품이도 아직 못봤어... 



Korea

Aerospace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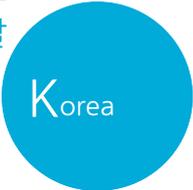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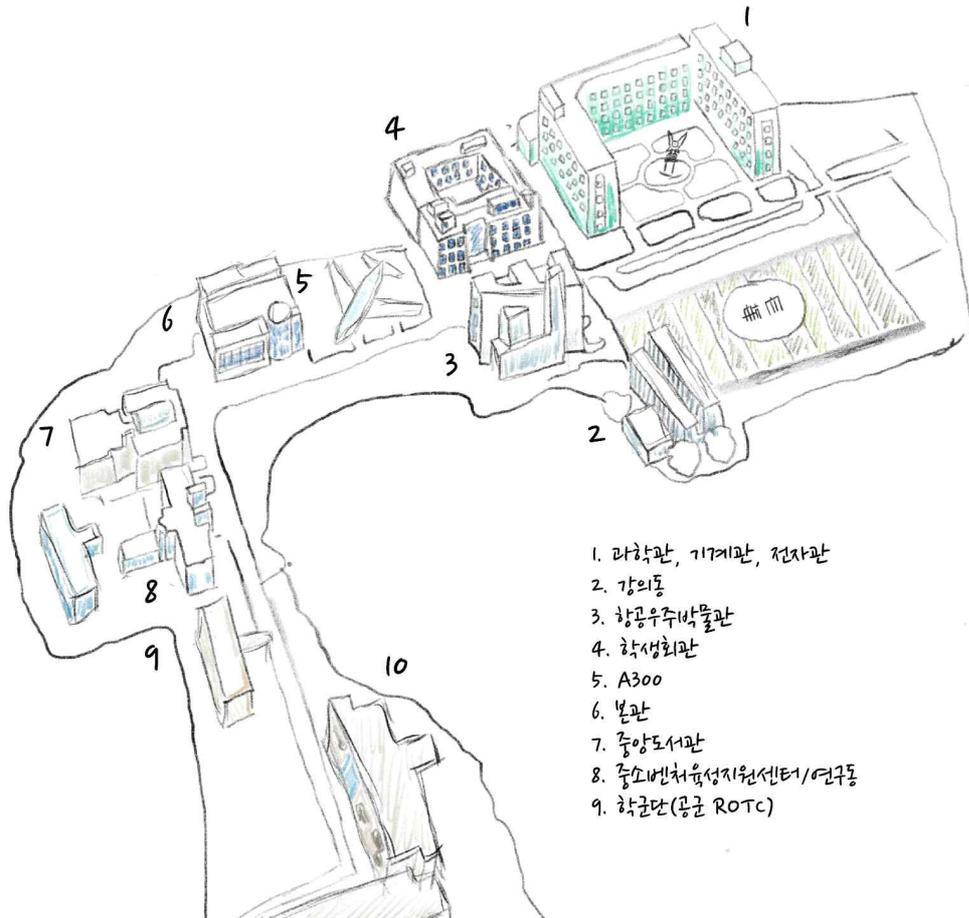
[KAU 마스코트 품품이와 재경이 - 페이스북 품품이 커뮤니티]

신입생과 함께하는 KAU 캠퍼스맵

캠퍼스를 많이 방문해보지는 못했지만, 대학 신입생으로서 가장 대학에 입학 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해주는 장소가 바로 캠퍼스였습니다. 적은 횟수지만 돌아다니며 받았던 느낌과 감정, 경험 등을 투박한 손그림과 친숙한 말투로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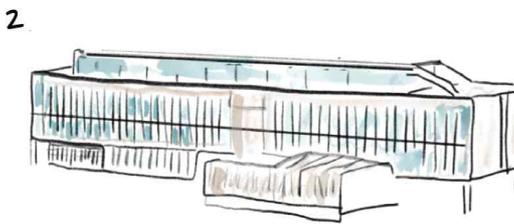
항공운항학과
송○진

신입생과 함께하는 KAU 캠퍼스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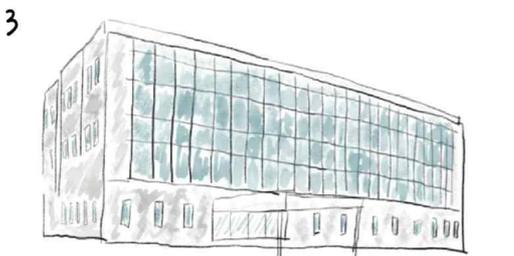




1 학교에 들어오자마자 확인할 수 있는 이곳은 바로 과학관, 기계관, 전자관! 가장 많은 수업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면서 가장 친숙한 곳이기도 하지 ㅎㅎ 다양한 모양으로 놓여진 건물들 가운데에는 시계탑과 잔디밭이 있는 센트럴 파크도 있대구 !! 여름에 친구랑 여기서 수업서 수업 기다리기도 했어



2 운동장 옆에 위치한 멋진 건물은 바로 강의동. 대체로 넓은 학교 건물들 중에 가장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야 그만큼 현대적이고 멋있대구! 강의실도 깔끔해서 이곳에서 하는 수업을 들을때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지 ㅎㅎ



3 강의동 바로 옆 쪽에 위치한 항공우주센터! 1층과 2층에는 항공우주박물관이 있는데 우리 항공대생은 무료입장 할 수 있어 어릴적 항공대 캠프에 참가했을때 흥미있게 관람한 기억이 있지 박물관 이모에 국제회의장, 연구실, 종동문화 사무실 등이 위치해있어 그리고 이곳 앞에 잠시 주차할 수 있어서 픽업 할 때 애용하는 편이야



4 항공우주센터 맞은 편에 위치한 학생회관! 아마 강의실이 위치한 건물들과 함께 가장 자주 방문하는 건물이 아닐까? 1층에는 학생식당, GS25, 카페 등이 있어서 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 장소야. 또 동아리방과 과방이 위치해 있는데 난 코로나로 인해 못 들어가봤어 ㅋㅋ 선배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동아리방에서 노는게 그렇게 재밌다는데, 빨리 코로나가 진정됐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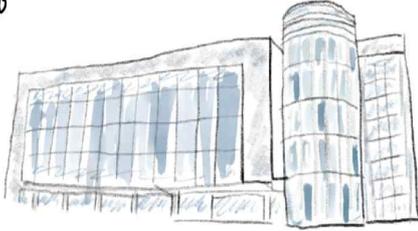
5 우리 학교의 새로운 명물 !! 바로바로 A300 여객기! 올해 본관 옆 주차장에서 조립하기 시작했어. 실제로 가서 보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대구! 이 비행기를 볼 때마다 항행 MAX!! 완공되면 실습실과 같은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된다는 데 그 날이 기다려진다

Korea

Aerospace

University

6



A300 옆에 위치한 이 건물은 본관이야.
1층에는 입학관리팀, 행정대학 사무실, 교무처 등이 있고, 2층에는 기획처, 경리팀, 총장실 등이 위치해 있어 3층부터 5층까지는 주로 연구실이 위치해 있지. 나도 일이 있어서 딱 한번 가봤는데 뭔가 익숙한 분위기여서 나도 모르게 움츠러 들었어 ㅋㅋ

7



정문을 따라 막힘없이 직진하면 나타나는, 언덕 꼭대기에 위치한 이곳은 바로 중앙도서관. 학생들마다 방문의 빈도는 다르겠지만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 ㅎㅎ
사실 다른 대학들의 도서관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편이야. 학생들이 항상 아쉬워 생각하는 편이지 ㅠ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열람실이 닫히거나 일부만 개방되었지만 항상 짝 자 있었다고 해. 시험기간에는 새벽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무척 많았다고. 우리 항공대 학생들의 학구열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지?

8



중앙도서관 옆에 위치한 이곳은 중소벤처육성지원센터. 안에는 작은 강당과 중소기업, 산학협력단이 위치해 있다고 해. 나중에 창업을 하는 학생은 이곳을 방문하게 되지요?
그리고 벤처센터 뒤에 위치한 건물은 바로 연구동. 이곳도 나와 같은 학생들은 방문할 일이 거의 없는 곳이지 온갖 장비들이 들어찬 채 많은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다고 해. 나중에 항공대 대학원생이 된다면 이곳에서 연구에 매진하겠지?

9



벤처센터 옆에 있는 이 건물은 학군단. 우리 학교 학군단은 공군 ROTC를 운영하고 있어. 한국항공대학교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다구. 나도 한 때 공군으로서의 미래를 상상했던 적이 있었지. 이 건물 앞을 지나다니다 보면 가끔씩 훈련받고 있는 ROTC 학우들을 볼 수 있어. 완전 멋짐 폭발!

10



캠퍼스 가장 끝에 위치한 이 건물은 기숙사. 1기숙사와 2기숙사 두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어. 나도 1학기때 잠깐 기숙사에서 지냈는데 세분일레븐과 헬스장 같은 편의시설이 있어. 또, 신축 건물이라서 엄청 깔끔해. 다만, 좌우금 비싸다는 게 단점 ㅠ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4인실을 2인실로 사용했고, 헬스장도 이용 불가, 원래 없었던 동풍도 생겼어. 이놈의 코로나, 빨리 끝나라!!



Follow

us:

<http://fsc.kau.ac.kr>

now

O N L I N E



KOREA AEROSPACE UNIVERSITY
FIRST YEAR SUCCESS CENTER

